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CNBC: CNBC 설문 "향후 1년간 최소 두 차례 금리 인상"
- WSJ: 국채 금리, 급등한 만큼 빠르게 하락 가능

[미국 금융]
- Bloomberg: 연준 회의 앞두고 주가 하락… 국채 금리·유가 고공행진

[미국 교육]
- Bloomberg: 베스트 비즈니스 스쿨과 MBA중 전망 좋은 3가지 분야
- WSJ: 학기당 학비 4만 불 주고 농사·집안일 하는 버몬트의 Mountain School

[물류]
- 후티 위협 속에서도 해운사들 홍해 항로 복귀

[오일]
- YahooFinance: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당해 유가 상승세 지속

[트럼프 관세]
- Bloomberg: 미·중, 농산물과 에너지 관세 인하 논의

[주택]
- WSJ: 미 주택시장 정체 속 7%대 모기지 금리 임박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Bloomberg: GM, 애플 CarPlay 지원 다시 협력

[공급망 일일 브리핑]
- KMI 글로벌 해운 공급망 브리핑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CNBC: No one and done: The Fed will hike at least two times over the next year, according to CNBC survey
CNBC 설문 "향후 1년간 최소 두 차례 금리 인상"

-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단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 오늘 화요일 CNBC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향후 1년간 연준이 최소 두 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. 이는 불과 한 달 전 조사(금리 인상 답변 50% 미만)에서 큰 변화다.
- 전망이 수정된 이유는 유가 상승이 꼽힌다. 하지만 응답자의 약 4분의 3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단순히 에너지 가격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장 전반으로 확산했다고 평가했다.
- 올해 평균 소비자물가지수(CPI) 전망치는 3.5% 근처까지 치솟았으며, 2027년 전망치 역시 2.85%로 상향 조정됐다.

기사

WSJ: Bond Yields Could Come Down as Fast as They’ve Climbed
국채 금리, 급등한 만큼 빠르게 하락 가능

- 최근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예상 때문이다.
- 단기 금리 상승 전망이 장기 금리를 올리는 핵심 원인이다. 10년물 금리가 5%를 향해 치솟자 인플레이션, 재정 적자, 기업들의 채권 발행 등이 원인으로 언급되어 왔다.
- 투자자 입장에선 어차피 단기 이자가 당분간 높을 게 확실해 보이니(연준의 금리 인상으로) 장기채를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. 장기로 자금이 묶이는 위험을 떠안는 만큼 이자를 더 얹어 달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Stocks Slip as Oil Rally Keeps Bonds Under Strain
연준 회의 앞두고 주가 하락… 국채 금리·유가 고공행진

- 이번 주 수요일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심이 커지면서 뉴욕 주가가 하락했다. 높은 유가가 지속되면서 국채 금리가 수년 만에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자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 투자에 조심하는 여파 때문이다
- S&P500 지수 포함 기업 중 약 400개 종목이 하락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% 떨어졌다. 나스닥은 0.7%, S&P 500은 0.5%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5%를 넘어섰으며, 브렌트유는 배럴당 107달러 부근까지 올랐다.
-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반면, 미 주요 규제 법안의 이번 주 처리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큰 폭으로 급락했다.



기사

[미국 교육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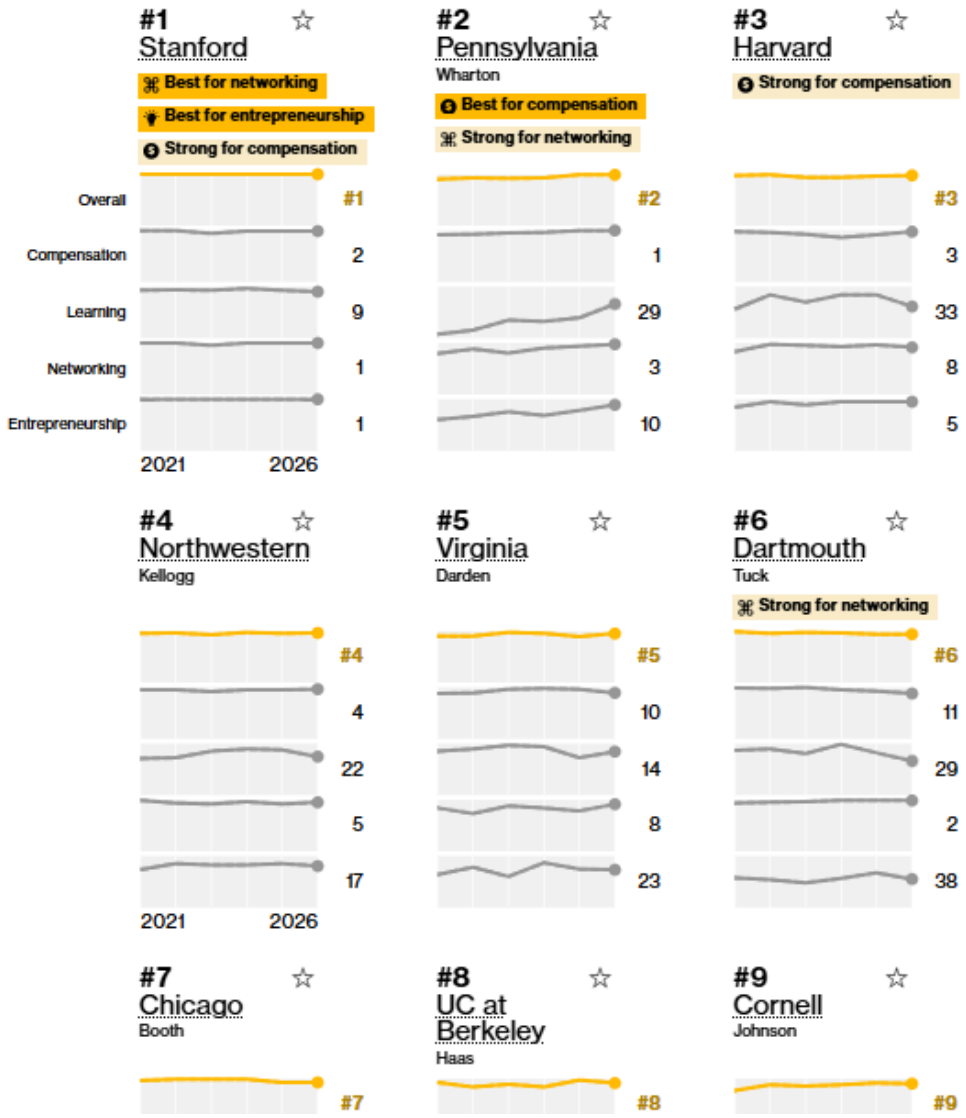
Bloomberg: Best Business School Rankings 2026–2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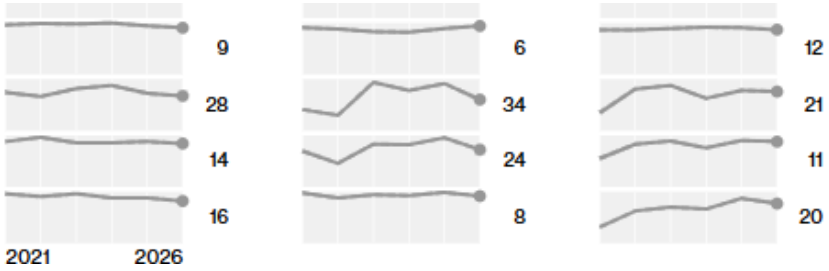
베스트 비즈니스 스쿨과 MBA중 전망 좋은 3가지 분야

US Business Schools Overall Ranking

Overall | Compensation | Learning | Networking | Entrepreneurship

Click on a school to view its full details.





아래 도표는 MBA중에 각광 받는 분야 비율. **컨설팅과 금융, 기술 분야**의 인기도가 높다

Industry	Schools	Number hired	Percent hired
Consulting	85	2,965	26.3%
Financial	96	2,708	24.0%
Technology	96	2,048	18.2%
Healthcare	90	638	5.7%
Manufacturing	84	481	4.3%
Consumer	77	479	4.2%
Energy	67	278	2.5%
Real Estate	54	232	2.1%
Retail	59	215	1.9%
Media/Entertainment	46	164	1.5%

기사

WSJ: The School Where Students Do Farmwork and Chores—and Pay $40,000 a Semester
학기당 학비 4만 불 주고 농사·집안일 하는 버몬트의 Mountain School

- 뉴욕주 버펄로 출신 등 고등학생들이 학기당 4만 불을 내고 참가하는 버몬트주 시골의 '마운틴 스쿨' 프로그램이 화제다.
- 학생들은 휴대폰을 제출하고 인터넷이 제한된 환경에서 디지털 기기와 떨어져 생활한다. 설거지, 교실 청소, 야채 손질 같은 일상 가사와 옥수수 수확, 양·소 치기, 장작 쪼개기 등 고된 농사일을 직접 맡아 처리한다.

- 참가 학생과 졸업생들은 이 특별한 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휴식이 될 뿐만 아니라, 명문대 입시에서 자신만의 강력한 스펙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기사

[물류]

WSJ: Carriers Shift More Containerships Through Red Sea, Despite Houthi Gains
후티 위협 속에서도 해운사들 홍해 항로 복귀

-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남단 요충지 및 항구 도시를 점령하며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. 그러나 주요 해운사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기 보다는 수에즈 운하 경로 복귀를 확대하고 있다.
- 주요 선사 Maersk와 Hapag-Lloyd는 아시아-유럽·지중해 4개 노선을 수에즈 항로로 추가 복귀시킨다고 발표했다. 2023년 말 반군 공격 이후 이용하던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항로 대신,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홍해 경로를 다시 활용하려는 것이다.
- 후티 반군이 사우디 외 타국 선박은 위협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, 선사들은 안보 상황을 주시하며 운항을 재개하고 있다.

기사

[오일]

YahooFinance: Oil prices edge higher as attacks, pipeline outage deepen Saudi supply concerns
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당해 유가 상승세 지속

-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이 각각 사우디의 군사 시설과 석유 파이프라인을 공격했다.
- 이에 따라 사우디의 '동서 파이프라인' 가동이 중단되면서 복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유가가 상승했다.

-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5.74달러, 미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은 101.66달러로 올랐으며, 장중 각각 108.43달러와 104.21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.

기사

[트럼프 관세]

Bloomberg: China and US Discuss Cutting Tariffs on Agriculture and Energy
미·중, 농산물과 에너지 관세 인하 논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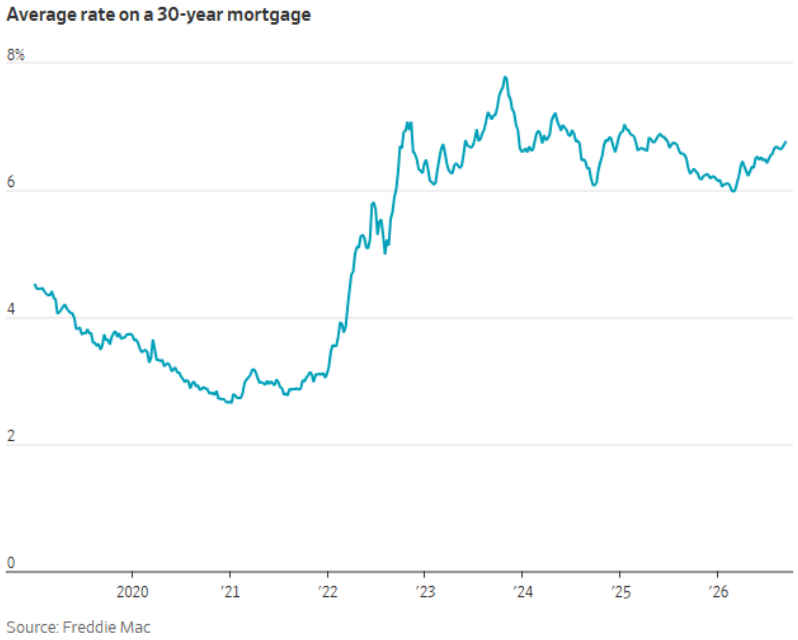
- 미국과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수출품 등 일부 품목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.
- 양국 회담에서는 미국 제조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국산 원자재·부품 관세 인하 합의도 논의중이다.
- 최종적으로 합의 될 경오, 이는 2025년 10월 합의된 '관세 휴전'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의지를 보여주는 주요 신호가 된다.

기사

[주택]

WSJ: The Stagnant Housing Market Is About to Face a 7% Mortgage
미 주택시장 정체 속 7%대 모기지 금리 임박

- 미 모기지 금리가 2025년 1월 이후 처음으로 7% 선에 바짝 다가서며 잠재적인 매수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.
-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같은 고금리 환경이 새로운 기준(New Normal)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한다.
- 모기지 금리가 7%까지 오르면 건설사가 고객을 끌기 위해 대출 이자를 대신 낮추는데 드는 돈이 늘기 때문에, 새 집을 짓는 사업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Bloomberg: GM to Offer Apple CarPlay After Shift Away From the System
GM, 애플 CarPlay 지원 다시 협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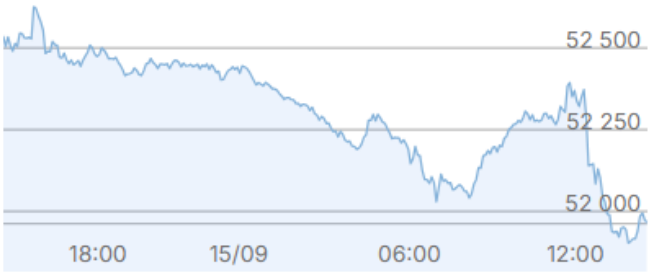
- GM이 최신 자동차 시스템에 애플 카플레이를 다시 탑재한다. 운전자는 화면을 나눠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동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- 새 시스템은 올해 말 2027년형 쉐보레 Silverado 모델과 GMC Sierra트럭에 처음 적용되며, 조수석용을 포함해 총 60인치 대화면이 들어간다
- GM 관계자는 이번 카플레이 화면을 양사가 공동 개발했다며, 두 회사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졌다고 강조했다.

기사

[글로벌 해운 브리핑]

-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재 선박을 77척으로 확대하고 한국 선사 선박도 포함한 가운데 호르무즈 통항량이 한 자릿수로 급감했다.
- 후티 반군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주변 섬과 홍해 요충지 하니시를 추가 점령하며 통제를 강화했고, 사우디의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(하루 700만 배럴 규모)은 드론 공격으로 피격돼 최대 6주간 가동 중단이 전망된다.
- 브렌트유는 108~110달러대로 한 달 새 23.71% 상승했다. 한국 국내 정유업계는 긴급 소집돼 비중동산 원유 수입 시 운임 차액 지원 확대 방침이 마련됐고, 산업부는 원유 90% 이상 확보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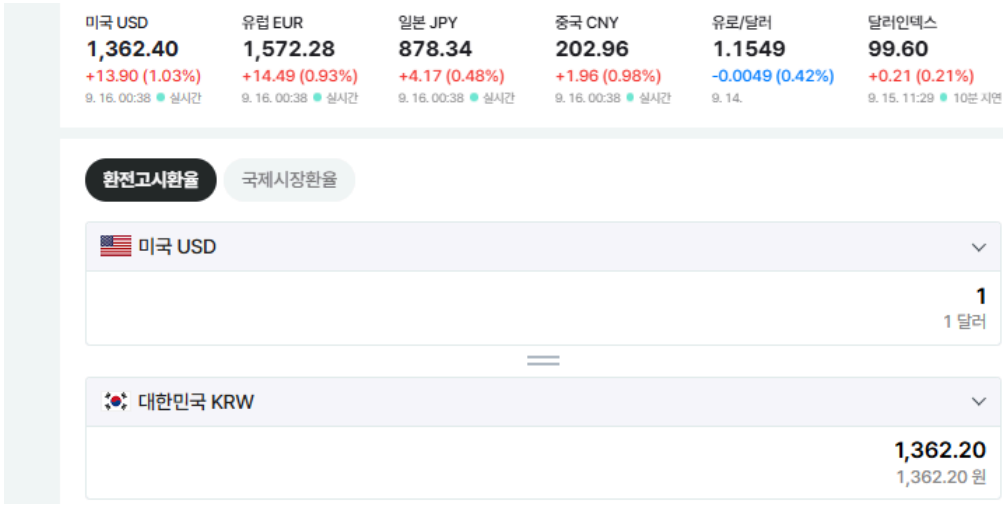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1,991.10	-430.2	-0.82%
US 500	7,587.00	-33.0	-0.43%
Dow Jones	51,949.51	-471.69	-0.90%
S&P 500	7,584.97	-34.99	-0.46%
Nasdaq	25,992.72	-193.70	-0.74%
S&P 500 VIX	17.64	+0.54	+3.16%
Dollar Index	99.37	+0.264	+0.27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-1/32	5.359	0.008
10-Year Note	4.625	0/32	4.993	0.005
7-Year Note	4.5	0/32	4.901	-0.006
5-Year Note	4.375	0/32	4.819	-0.006
3-Year Note	4.375	0/32	4.752	-0.010
2-Year Note	4.125	22/32	4.659	-0.016
1-Year Bill	0	0/32	4.349	-0.016
6-Month Bill	0	0/32	4.187	-0.003
3-Month Bill	0	0/32	4.056	0.018
1-Month Bill	0	0/32	3.864	-0.005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